

2022. 9. 6

해외동향부 (제 6304)

- 주요 뉴스: 유럽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대응에 총력 가스 가격 급등하고 주가는 하락
 - 영국, 신임 총리로 리즈 트러스 전 외무장관 선출. 감세 및 규제완화 추진 예상
 - 중국 인민은행, 외화예금 준비율 2.0%p 인하. 위안화 약세 억제가 목적
 - OPEC+, 일일 10만배럴 감산에 합의.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유가 하락을 대비

- 국제금융시장: 미국 증시는 휴장. 유럽은 에너지 공급 불안 지속

유럽 주가 하락[-0.6%], 달러화 강세[+0.3%], 독일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
유로 Stoxx600지수는 자동차 관련주 약세 등으로 0.6%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전망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모두 0.3% 하락
- 금리: 미국 채권시장은 노동절로 휴장
독일은 ECB의 큰 폭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4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370.2원, -1.2원) 약보합, 한국 CDS 상승

		9/5일	9/2일	전일대비			9/5일	9/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휴장	3,924.3	-	국채 금리 10y	미국	휴장	3.19%	-
	유럽	413.39	415.97	-0.62%		독일	1.56%	1.53%	4bp
	중국	3,199.9	3,186.5	0.42%	CDS 5y	한국	33bp	32bp	1bp
	일본	27,620	27,651	-0.11%		중국	75bp	73bp	2bp
	한국	2,403.7	2,409.4	-0.24%	위험 지표	EMBI+	-	442	-
환율	달러지수	109.82	109.53	0.26%		VIX	휴장	25.47	-
	유로화	0.9929	0.9954	-0.25%		WTI유	휴장	86.87	-
	엔화	140.60	140.20	-0.28%	원자재	구리	휴장	342.2	-
	위안화	6.9340	6.9000	-0.49%		금	1,710.4	1,712.2	-0.10%
	원화	1,371.4	1,362.6	-0.6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유럽,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대응에 총력. 가스 가격 급등하고 주가는 하락
 - 유럽 각국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대책을 모색. 먼저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가격 상한제 혹은 국가별 에너지 가격 상한제 시행을 제안. 이는 에너지 시장 불안 완화, 인플레이션 억제, 러시아의 전쟁 능력 약화에 도움
 - 이 외에 독일은 가계 지원과 기업 구제금융 등을 위해 650억달러를 배정했으며, 스웨덴과 핀란드 역시 위험에 처한 전력생산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아울러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전기와 가스를 상대방 국가에 제공하기로 결정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다수의 국가에서 어려움이 가중. 특히 독일은 당초 예상했던 가스 비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물가불안과 경기위축 등으로 연결될 우려. 금년 말 유럽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Morgan Stanley는 금년 기업이익이 금융위기 시대와 같이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
 - 이러한 영향으로 유럽 가스가격은 급등(245.9유로, +14.6%). 반면 주가는 하락(독일 DAX, -2.2%, 프랑스 CAC40, -1.2%)하고 국채금리는 상승(독일 10Y, 1.56% +4bp, 이탈리아 10Y, 3.94% +10bp).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20년래 최저(0.9929, -0.25%)
 - BlackRock의 Wei Li는 유럽 각국의 대책 마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주 비중 축소를 권고. 한편 골드만삭스는 향후 1유로당 0.97달러까지 떨어져,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최근 수준에서 2%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영국 여당, 신임 총리로 리즈 트러스 전 외무장관 선출. 감세 및 규제완화 추진 예상
 - 트러스 신임 총리는 과감한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주력할 것이며, 장기적 측면에서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 또한 언론들은 트러스 신임 총리가 가계의 에너지 비용 상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
- 영란은행 정책위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강력한 금리정책을 지지
 - 캐서린 맨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영란은행은 더 이상 현 상황에 안주할 수 없다고 언급. 또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까지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

■ 유로존 7월 소매매출, 전월비 소폭 증가. 기존 둔화세는 지속

- 해당 매출은 전월비 0.3% 늘어 6월(-1.0%) 대비 증가했으나 예상치(0.4%)를 하회. 특히 세부항목 기준으로 식품 및 에너지 제외 시 대부분의 경우 전월비 감소. 이에 일부에서는 향후 소비자지출 역시 부진할 것으로 예상

■ 유로존 9월 Sentix 투지신뢰지수, '20년 5월 이후 최저. 경기침체 우려 등이 반영

- 해당 지수는 -31.8을 나타내 전월(-25.2) 및 예상치(-27.5) 대비 낮은 수준. 세부항목 가운데 기대지수(-33.8)는 '08년 이후 최저. Sentix의 Manfred Huebner은 기대지수 부진이 역내 경제 전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설명

■ 중국 8월 차이신 서비스 PMI, 전월비 하락. 향후 전망도 불투명

- 해당 지수는 55.0로 전월(55.5) 대비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및 폭염 등에 기인. 세부항목 기준으로 신규수주가 증가했으나 수출수요는 소폭 감소. 차이신 그룹의 Wang Zhe는 코로나 19 확산과 이상 기후가 소비자 수요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어, 당국의 경기부양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 중국 인민은행, 외화예금 준비율 2.0%p 인하. 위안화 약세 억제에 목적

- 외화예금 준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춰 새롭게 제시한다고 발표. 은행들은 이번 조치로 달러화 유동성 공급을 늘릴 수 있으며, 이는 위안화 가치 상승 요인이 될 전망. 최근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경기 둔화 등으로 2년래 최저 수준
- 한편 이번 결정에 따른 달러화 유동성 증가 규모는 190억달러로 추정. 다만 일일 환전 규모 고려 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또한 Mizuho의 Ken Cheung은 시장에서 이번 조치를 예상했고, 위안화 가치에 이미 반영된 상태라고 평가

■ OPEC+, 일일 10만배럴 감산에 합의.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유가 하락을 대비

- 10월부터 글로벌 수요의 0.1%에 해당되는 일일 10만배럴 감산을 시작할 계획. 이번 결정은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유가의 과도한 하락을 대비한 조치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9/6 현지시각 기준)

-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미국 8월 ISM 서비스 PMI, 독일 7월 공장수주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달러화 강세, 자국 경제에 양면적 영향을 초래 - 블룸버그

(A Surging Dollar Is a Mixed Blessing for the US)

- 9/5일 달러화 지수(109.82)는 유로화 등 여타 통화의 약세로 '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과거에는 달러화 강세가 나타날 경우 미국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 하지만 현재는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 그러나 달러화 강세는 다른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키워 수출 수요를 감소시키고,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등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미국에 부담. 이에 달러화 약세를 위한 시장개입 보다는 성장 동력 제고와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한 대응이 적절

■ 글로벌 에너지 위기, 3가지 신화(잘못된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필요 - Financial Times

(Three myths about the global energy crisis)

-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 가운데 3가지 신화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 첫째, 러시아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증가로 서방과의 에너지 전쟁에서 유리하다는 평가. 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신용 및 시장점유율 하락에 따른 비용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단기적 수익을 초과할 소지
- 둘째,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가 과도하여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었다는 주장. 오히려 그 전에 청정에너지 개발을 더욱 강화했다면, 이번 위기는 완화되었을 가능성. 이에 향후 청정에너지 개발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셋째, 기후변화 대응을 늦출 수 있다는 전망. 그러나 EU 등 주요국들은 재생 및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를 늘려 오히려 기후위기 해결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

■ 미국 경제, 적절한 재정정책 부재 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우려 - Financial Times

(Uncomfortable economic truths)

■ OPEC+의 감산 합의, 유가 결정력을 지키기 위한 서방에 대한 경고 - WSJ

(OPEC+'s Warning Shot)

■ 중국 위안화 약세, 경제여건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정부 개입 불필요 - 블룸버그

(Yuan's Slide Shouldn't Be Seen With Shock, Horror)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